진도군,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 11월 8일 개최

진도홍주, 젊은 감성으로 깨어나다… 11월 8일(토) 2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열려

진도군이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주(名酒) '진도홍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축제인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를 오는 11월 8일(토) 오후 2시에 진도개테마파크 국화축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감성의 음료 문화를 진도 홍주와 결합한 '세대 공감형 축제'로 기획됐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은 ▲하이볼 바 ▲디제이(DJ) 공연 ▲벼룩시장(플리마켓) ▲체험활동 등 참여형 행사로 꾸며지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진도의 대표 문화 행사로 발전할 전망이다.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의 중심은 진도홍주를 활용한 '시그니처 하이볼'인데, 레몬, 허브 등 천연재료로 진도홍주의 붉은빛과 향을 살린 대표 음료와 술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논알코올 칵테일)도 함께 선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통기타와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여유로운 가을의 분위기를 선사하며, 밤에는 전자음악(이디엠)과 케이팝(K-POP) 무대가 이어져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축제의 밤을 연출한다.

행사장에는 진도 출신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벼룩시장(플리마켓)과 지역 먹거리 판매장이 운영되며, 전복, 김, 울금 등 진도 특산물로 만든 안주와 간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바텐더)가 진행하는 '홍주 칵테일 만들기', 빨강을 주제로 한 '레드 포토존 & 페이스페인팅', 홍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홍주 역사관'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운영된다.

축제 전에 참가를 신청한 신청자에게는 '진도홍주 하이볼'이 무료로 제공되며, 행사 당일에 빨간색 옷을 착용한 참가자에게는 '진도 기념품(굿즈)'이 증정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는 진도의 전통 명주인 진도홍주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국 유일의 전통주 축제다"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지역 문화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축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성인 인증 팔찌를 발급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며, 분리수거 구역을 운영하고 다회용 컵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나주시-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교육과 문화 교류 본격화

교육, 문화 협력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프랑스 교류 도시 클레르몽페랑과 교육과 문화 분야 교류를 본격화하며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제롬 오슬랑데르(Jérome Auslender) 부시장 등 3명으로 구성된 행정대표단이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나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가 우호 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클레르몽페랑 측 행정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으로 나주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동신대학교를 찾아 청소년 교류 및 대학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나주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금성관 등 주요 문화유산과 전통 체험지를 둘러보며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나주시립국악단의 아리랑, 가야금병창, 화선무 등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의 예술 문화를 이해하고 향후 양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도시는 지난 7월 나주 청소년이 '클레르몽페랑 국제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데 이어 2026년 나주에서 열릴 예정인 '클레르몽페랑 청소년 여름 캠프' 개최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나주시와 클레르몽페랑시는 교육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과 시민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클레르몽페랑은 프랑스의 교육 및 문화 중심 도시로 나주가 지향하는 에너지, 교육, 문화 융합 도시 비전과 닮았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실질적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롬 오슬랑데르 부시장은 "나주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가 교육과 문화,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군, '어르신 청춘바우처' 본격 시행

목욕탕, 이·미용실 전용카드로 어르신 복지·지역상권 살린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월 1일부터 '어르신 청춘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군비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1인당 연간 6만 원(반기별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비 2억 8,500만 원은 반기 기준 예산이며, 2026년은 총 6억 3,000만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 중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청춘바우처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경우 복지예산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드형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지류형(종이 쿠폰) 방식은 분실·훼손의 우려가 크고,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카드형 복지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의 81%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의 91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군은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접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 확인 및 잔액 조회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사용 금액과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고흥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어르신 78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고흥군은 노인복지 기반 확충,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전담주치의제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충전 프로젝트' 진행

서로의 문화를 품고, 함께 웃는 제주 이야기!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순호, 민간위원장 임재신)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원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마음충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22명을 비롯해 군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 군 관계자 4명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했다.

'마음충전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도전과 나눔의 상징'인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 난타 공연 관람과 마라도·감귤박물관 체험 등을 통해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다.

한 다문화가정 참여자는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여행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지역사회 속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재신 위원장은 "이번 여행이 다문화가정에게는 위로와 활력이, 협의체 위원들에게는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활력을 선물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다양한 문화와 이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적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돌봄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광군, 한파·대설 등 겨울철 축사피해 예방 대책 추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올 겨울 한파와 대설 등 기상 특보가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가축 재해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재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시설 점검·보강 ▲난방기기 적정 사용과 화재 예방 홍보 ▲제설 장비 지원 및 신속한 제설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기상 특보 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설·한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농가는 연동식 비닐하우스 가온, 축사 구조 보강, 전기설비 점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필요시 방역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폐사 가축 처리 및 재해 복구를 지원한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심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성군, 올해 '찾아가는 감염관리 교육' 매듭

병·의원급 11곳 방문해 실무 중심 감염관리 교육 시행

장성군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감염관리 교육' 일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병원급 4곳, 하반기에 의원급 7곳을 대상으로 △손 위생 △소독·멸균 △의료폐기물 관리법 등 실무 중심의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기준,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절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신고 개정사항 등도 안내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교육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062-525-9775